

학교생활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정학습도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아이가 학년별 순환 등교로 3주에 한 번씩 등교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지 불안감이 큼니다. 조만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해 가정학습을 고민 중인데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혜은(40·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A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는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등교 개학에 앞서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하더라도 출석이 인정됩니다. 다만, 가정 학습을 포함하는 교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가정학습' 사유가 신설된 이후, 각 시·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해 인천 28일 이상, 경기 40일, 세종 34일, 대전 40일 등 대부분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늘렸습니다. 단, 서울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기존 19일에서 34일로 확대됐으나, 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차원의 교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 지침을 두지 않아 학교별로 허용 일수를 결정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이 전체 수업 일수의 10% 이내라는 제한이 있어 올 한 해만 20% 이내로 늘린 것이다. 중·고등학교는 원래 교육청 차원의 교외 체험학습 기간 제한이 없어 학칙에 따라 재량껏 결정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는 20~30일 정도 교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는 학교마다 다르며, 정확한 내용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

MORE TIP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체험학습 절차와 동일하게 사전에 신청서나 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가정학습을 이후에는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김경희 장학사는 "가정학습의 경우 기존의 신청서나 보고서 형태가 아니라 학교 수업과 관련한 교과목의 학습 내용을 적고 사후에 가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교외 체험학습에 필요한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 충실한 가정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하기 바랍니다.

취재 송은경 리포터 eksong@naeil.com



입시

A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사회탐구 과목을 필수 응시 영역으로 지정한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해 수능을 치러도 인문 계열 학과에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 배재고 장지환 교사는 “일부 대학을 빼고는 거의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사회탐구를 필수 응시 영역으로 지정한 대학도 있다. 2020학년의 경우 한양대 경희대 인하대 아주대 세종대 전북대 등이 그랬다. 2021학년의 경우 아직 정시 모집 요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2021학년 입학 전형 계획을 보면 그대로 유지되는 추세다”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계열별·학과별로 필수 응시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대학의 모집 요강이나 전형 계획을 통해 수능 반영 영역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1학년 한양대 신입학 전형 계획을 살펴보면 인문, 상경 계열과 연극영화학과(영화전공)는 사탐 2과목을 필수 응시 영역으로 지정해 사탐 응시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반면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심리뇌과학과)의 경우 수학 가·나형과 사탐·과탐 응시자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수학 나형을 필수 응시 영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수학 가형을 선택해도 인문 계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능에서 수학 나형과 과학탐구 과목을 응시할 경우 인문 계열 지원이 가능할까요?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이과여서 수학 가형과 과탐을 공부해왔는데 갑자기 인문 계열로 진학하고 싶다고 해요. 수학은 나형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탐구 선택 과목을 갑자기 사회탐구로 바꾸려니 엄두가 안 나네요. 수학 나형과 과탐으로 수능을 볼 경우 인문 계열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은서(47·서울 중구 신당동)

MORE TIP

최근 발표된 2022학년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자연 계열과 달리 인문 계열, 융합학부, 예체능 계열 학과는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사탐·과탐 17과목 중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지원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이과 통합에 따라 과탐 선택자의 인문 계열 진학은 더욱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